

전남 조선·해양산업, AI·친환경 전환…미래 설계 나섰다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
지·산·학·연 15개 기관 협력
AX 대응전략 제시…비전 논의

전남 조선·해양산업이 AI와 친환경을 축으로 한 산업 전환에 본격 나섰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분야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혁신과 상생 발전을 선언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17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9일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영암·목포·해남 등 서남권 지자체 관계자, 조선·해양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혁신 방향과 협력 전략을 공유했다.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은 2008년 전남 조선산업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선언하며 연매출 10조원 달성을 선포한 것을 기념해 지정된 행사로, 매년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



2025. 12. 19.(금) 14:00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1층)

전남도 국립목포대학교

2025. 12. 19.(금) 14:00 |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1층)

2025. 12. 19.(